

『내 마음의 반석이신 하나님』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세상의 모든 살아 있는 것은 호흡을 한다. 사람은 숨을 들이 마시면서 산소를 얻는다. 그리고 이 산소를 가지고 영양소를 태워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사람이 숨을 내 쉴 때 몸속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 몸에 좋은 것은 들이 마시고, 해로운 것은 내뱉는 것이 호흡인 것이다.
기도하기	우리의 영혼도 호흡을 한다. 우리의 영혼도 좋은 것을 들이마셔야 하고, 나쁜 것은 내뱉어야 한다. 우리 영혼에 좋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들이마셔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마셔야 한다. 그리고 영혼에 해로운 죄와 허물과 악한 생각과 음욕과 거짓을 뱉어내야 한다. 회개는 낚숨이다. 회개할 때에 우리 영혼을 숨 막히게 하던 더러운 것들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성경읽기	오늘 시편 73편을 지은 시인 아삽은 악인들이 항상 평안하고 부요한 것을 보면서(12절)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온 것을 잠시 후회했다. 아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시는 것을 보았다. 악인이 형통할 때에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함은 꿈과 같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다 무시하고 멸시해 버리신다.
오늘의 메시지	시인은 잠시나마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헛되게 여기며 하나님을 의심했던 마음을 자백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21절). 그리고 하나님께 새로이 신앙고백을 한다.
본문 나누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들이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내뱉을 때에 강건할 수 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며, 영혼의 호흡을 이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본문 나누기】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자녀가 부모를 닮았을 때 '판박이', '국화병'이라고 한다. 많이 닮았다는 뜻일 것이다. 그런 소리를 듣고서 불쾌하다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없다. 또한 자라 온 환경과 여건이 다른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어 오래 살다보면 서로 닮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한다. 서로를 닮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뿌듯한 일이다.
기도하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을 닮았는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많이 닮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대견스럽고 흐뭇하게 여기실까?
성경읽기	본문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15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16절)"고 말씀한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한다.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닮은 것과 같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가르친다. 본받으라는 것과 닮으라는 것은 이음동의어다.
오늘의 메시지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인격, 즉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성김, 예수님의 회생을 닮아야 온전히 예수를 닮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 나누기	본문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오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말이나 글로 예수님을 소개하기보다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삶으로 차원 높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진짜 예수 닮은 사람, 그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기를 바란다.
함께 기도하기	【본문 나누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무심코 들은 비난의 말 한마디가 잠 못 이루게 하고 정을 담아 들려주는 칭찬의 말 한마디가 하루를 기쁘게 한다"라는 말이 있다.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말하느냐는 하루 생활을 넘어 평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것은 순간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에 영향을 주어 결국 행동하게 한다. 결국 인생 방향이 바뀌고, 삶의 내용이 결정된다.
기도하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람들이 우리의 능력에 따라 혹은 역할을 따라 불러주는 호칭들은 다양하다. 그 호칭들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위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신다. 원래 이 호칭은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특별한 자들에게 붙여졌다. 모세, 다윗, 엘리야, 하나님의 사자들. 그런데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호칭이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엄청난 회생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붙여 주신 호칭이다. 그래서 은혜요 감사요 영광인 것이다.
성경읽기	그렇다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떤 것일까?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자! 너는 나의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특별한 존재야!"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다.
오늘의 메시지	직장에서는 직장의 호칭이 있다. 가정에서도 각자의 호칭이 있어 부를 때 서로 응답한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위치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신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아멘"으로 대답하자.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본문 나누기】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211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
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
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의 수가 감소하는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고 있는 듯하다. 말라기는 우리의 가증스러운 예배가 성전 문을 닫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남유다 백성은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 처음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는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또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은 유다에 곧 강력한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그 예언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갔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형식적으로 변해 버렸다. 심지어 제사장들마저 타락하여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의 믿음이 변질되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10절)"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셨다. 그렇게 성전 제사를 폐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는 우리들도 유다 백성처럼 형식적이고 가증스러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닫게 하실 것이다.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 세상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372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
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
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1절)"고 말씀하신다. 곧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것이다. 희망을 빼앗긴 사람들, 힘들고 지치고 상한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말씀이다.

교회 안에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다. 때로는 사역자들이 일인다역을 하게 된다. 감당해야 할 사역은 많은데 때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손길이 부족해 한 사역자가 두 세 가지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색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 그런데 그러다보면 뜻하지 않던 탈진이 찾아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겪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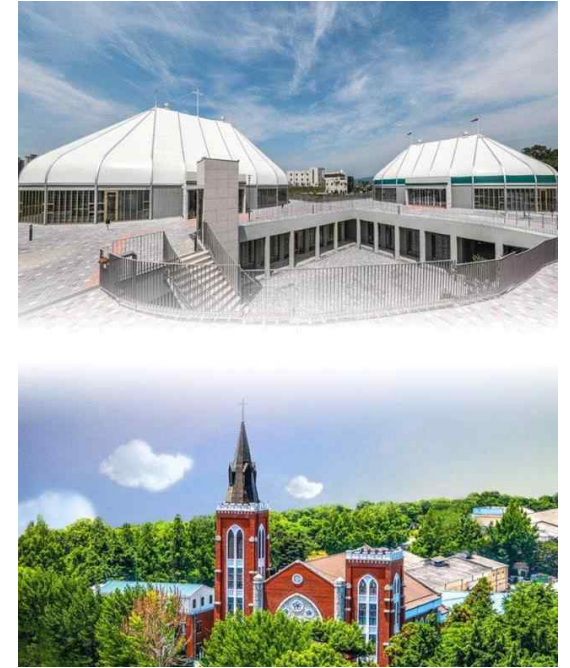
사역자들에게도 힘이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로의 말 한 마디는 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청량제가 될 것이다. 수고한다는 말이 지친 몸을 쉬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 충성하는 사역자들을 격려의 말로 위로하는 것도 필요하고, 조용히 기도로 응원하는 것도 좋은 위로가 될 것이다.

힘들게 헌신하며 봉사하던 사역자들도 지치고 힘들 때 마냥 참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께 "저 힘이 듭니다.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습니다"라고 솔직하게 표현해야 한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따뜻한 위로의 손길로 우리를 업어주실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 누구의 위로보다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면 아무리 힘들고 지쳤을 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에 힘을 얻기도 하지만 이와 더불어 주 안에서 이웃 된 이들을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며 위로하자.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분명 기뻐하실 것이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림교회**

위임목사 : 최 용 희

임동 예배당 :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7 T.525-5252 F.525-5260
수완 예배당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완길 303 T.525-0303 F.525-0301